

책의 해에 거는 기대

김문환

서울대 교수·미학

그야말로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매일같이 각종 홍보물이 내게도 밀어닥친다. 그중 대부분은 기껏해야 가로 세로 대충 훑어본 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마련이지만, 제법 찬찬히 살피고 때로는 표지를 해서 쌓아두게 되는 것들도 있다. 내 경우, 책에 관한 정보들이 그러하다. 언젠가는 책방에 들러 한번 내용을 제대로 보고 사보리라고 버리지만, 정작 책방에 가게 되면 그 책들을 사게 되지 않고 이 책 저 책 구경하다가 흥미가 생긴 다른 책들을 사들고 돌아오는 수가 적지 않다. 홍보와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독일에서의 생활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곳에 있을 때 친지의 권유로 다름슈타터 북의 게젤샤프트라는 조직의 회원이 되었다. 쉽게 말해 북클럽이다. 가입비가 저렴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처음에 선물로 보내온 책들의 총액에 못미쳤던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안내책자를 보내오고 또 예약을 받기도 한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할 책임도 부과된다. 거기에서 보내오는 책들 중에는 일반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레코드판이나 그림, 그리고 책장 등 관련 문화상품도 있어서 선택에는 그리 문제가 없다. CD덕분에 요새는 좀 팔시를 받는 편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 중에는 그렇게 해서 구한 것들이 많다. 책방에 가면 자칫 충동구매로 인해 가난한 유학생들이 더욱 주름지게 마련인 데 반해, 이 북클럽을 통한 경우 시간을 두고 여러모로 비교가 가능해 크게 손해봤다고 후회할 일이 거의 없다.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여러가지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가며 1991년을 연극·영화의 해로 지정한 일이 있는데, 연극계에서는 이 해가 단지 여러가지 행사들의 나열로 시종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때 전에 선포된 문화발전10개년계획에 들어있던 공연예술 관계 장기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던 것이다. 결국 행사 위주로 끝나고 말았지만, 문화발전10개년계획의 작성에 꽤 깊숙하게 관여했던 나로서는 공연예술관계 장기계획을 실상 출판정책을 모범으로 삼아 제안했고,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모델들이었기에 계획에서나마 받아들여졌음을 상기하면서 그와 같은 연극·영화의 해를 무척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컨대 출판금고를 모델로 해서 공연(내지 연극)제작금고를 설치·운영해 보자는 것이었다. 출판연구소도 성공사례 중 하나이고, 여러가지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출판단지도 여하간에 관·민이 협동할 문화진흥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실험일 수 있다. 나로서는 출판된 새책들 중 일정기준에 들어서는 것들을 공공도서관이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의 정착이 금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북클럽의 정착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연극·영화의 해로 돌아가서 말한다면, 당시 관객조직 내지 회사의 창출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는데, 바로 북클럽과 같은 취지였다.

부디 바라기는 이와같은 발상이 성공을 거두어 도서뿐이 아니라 관련 문화산업의 진흥에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술 전반에 대해서도 일단 보통 사람들도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데, 그들에게 여러가지 예술과의 만남을 좀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한편, 예술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좀더 계획성있고 규모있는 살림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

우선 무엇보다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흩어져버려 있는 도서관계 홍보자료들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 책의 해에 요란한 행사들보다 이 북클럽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뉴스	2	공공도서관 내실화작업 본격추진된다·외
표지인물	4	새에 미친 반평생 탐조활동의 중간결산 「한국의 새」퍼낸 조류학자 윤무부교수
리뷰	6	비로소 주목되는 우리땅의 자연환경 동식물 생태 담은 도감류 출판 잇달아
집중취재	8	책의 해 열기로 지퍼지는 새기업문화 기업체 독서운동 폭넓게 확산되며 호응 얻어
서평	10	강상현 외 「매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손병우 최정표 「재벌해체」— 강상호
	11	가이 오코스 「게오르그 짐멜」— 김찬호 고든 펜처 「무용의 철학」— 김채현
	12	김영희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이일환 김도련 외 「꽃피자 어데선가…」— 송준호
	13	미치오 가쿠 「아인슈타인을 넘어서」— 소광섭
출판화제	14	책으로 찾는 세계각국 서사문학의 원류 고대인 원형적 심상 집대성한 상상력의 보고
	15	일제 식민지시대가 남긴 역사의 상흔 천일파 조선어학회 정선대 문재 다룬 책 연이어 출간
	16	아동용 전자도서 개발 부쩍 활기 띤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출발… 본격시판은 시기상조
화제의책	17	책과 출판에 관한 흥미로운 진기록 「1993 기네스북 - 한국판」
시론	18	결국은 제살 파먹는 저작권 과당경쟁 미국소설 「모레」를 둘러싼 국내업자들의 경쟁을 보며
자료	19	간행물윤리위 선정 청소년권장도서 30종
실용도서	20	이사철 맞아 살펴본 내집 마련 안내서
이색기획	21	폭과 깊이 다양화하는 바둑책 출판
이책그사람	22	「여가의 사회학」낸 김문겸씨 「XY :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낸 최석씨 23 「당나귀의 꿈」낸 권대웅씨 「만다라」낸 홍운식씨
컬러화보	24	책의 해에 차려진 일러스트 큰잔치 한국출판미술대전 지상전시
세계의책	26	한 미국신문과 신문사의 이면 — 배병삼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시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